

#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라져 가는 민속문화, 민화 850여 컷에 담아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민속도감**  
 신현숙 지음 | 김만희 그림  
 현암사 | 3만8000원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모락모락 굴뚝으로 연기 피어오르는 초가집에서 가마솥에 한가득 밥을 지어먹고, 해가 저 낡아 어둑어둑해지면 등잔불에 아주까리기름을 넣어 불을 밝혔다.

또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곡식을 찧고 빵을 때에는 방아, 연자매, 짚구, 맷돌등을 이용했다. 우리 조상들은 물레로 실을 자아 베틀로 옷감을 짜 입었는데 그 옷이 한복이다. 혼례식 때에는 신부가 오색 술이 달린 족두리를 쓰고 고운 가마를 타고 말을 탄 신랑을 뒤따랐다. 자자손손 복을 빌기 위해 서낭당에서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절기에는 여러 가지 놀이와 춤으로 흥을 즐겼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의 생생한 사람살이 모습 속에서 찬란한 우리 민속 문화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민속도감>이 나왔다.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민속도감>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오랜 역사와 자손대대로 이어 온 조상의 자취들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또 우리나라 어린이라면 정말 알아야 할 민속품을 소개하고 그 쓰임을 알아볼 수 있게하고 있다. 그래서 사라져 가는 민속 문화를 민화기법으로 고증한 우리 민속 문화의 길잡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 책에 소개된 민속화(민화)는 김만희 화가(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가) 30년 동안 그린 그림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우리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라면 꼭 알아야 할 민속문화까지 고증을 거쳐 짜여져 있는 이 책에는 '주생활' '식생활' '의생활' '가구와 생활소품' '군사장비와 형구' '신앙과 놀이'의 여섯 마당으로 골고루 구성하고, 그림도 아주 세밀하게 그렸다.

책에는 장독대, 뒷간, 자물쇠, 외양간, 목어, 가마, 우마차, 화로, 다식판, 뒤주, 찬함, 관모, 복, 신, 노리개, 승복, 먹통, 벼루, 등잔, 문갑, 장롱, 경대, 갑옷, 투구, 부처, 국, 국악기등 옛날의



결혼식을 올리고 신랑 때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

생활 요소조묘와 사람살이를 생생히 보여주는 민속화 850여 컷이 수록돼 있다.

책속의 민속자료를 들여다보면 오늘날 전통미술자, 디자인, 교육관광분야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로 손색없다.

더 나아가 자료들이 워낙 생생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나누는 넉넉함을 저절로 배울 수 있게 된다.

민속 문화를 통해 저절로 역사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든 <어린이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민속도감>이 나오기까지 김만희 화가는 30년 동안 산간벽지와 오지마을을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사진을 수집했다. 고생 끝에 찍은 사진과 실물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을 그린만큼 사실과 틀림없고 고증도 정확히 했다. 여기에다 아동작가인 신현숙씨가 글로 상세하게 묘사하여 민속자료의 완성도를 높였다.

저자인 신현숙씨는 "우리 민속 문화 속에 숨겨진 문화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통해 민속 공부의 공 '역사 공부'임을 깨닫도록 남겼다"며 "이 책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나누는 넉넉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재능과 특성을 키워 전문가로 속속 커가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을 그린 김만희씨는 한국전통미술인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민속화자료 개인전을 국내외에서 수십회 개최했다. 저서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풍속화 백가지>가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 동네사람들이 모여 집집마다 초가에 흰 이엉을 걸어내고 새 이엉을 이었다.



복두	벼루
디돌방아	갑옷
반달이	한복
조바위	목화
태을천사대장군	족두리
형구	북

## 네티즌강추

나를 알고 남을 알게 되니 관계가 풀린다

**소설처럼 읽는 멋진 인간관계 만들기** 대경북스, 최준호 지음  
 책을 받고 나서 표지의 딱딱함에 놀랐다. 표지에서 느껴지는 지루하고 무거움에 책이 신간이 맞는지 뒷면을 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읽어내려가기 시작한 책은 퍼자마자 나의 고개를 가우뿔하게 하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고 10페이지를 넘기자 웃음을 유발시켰으며 30페이지가 넘는 순간부터는 내게 연필과 메모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제목에서 말해주는 것 이상으로 이 책은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혀진다.

이 책은 나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형도 파악하여 인간관계를 멋지게 만들어나가는 목적에 출간된 것 같다. 내가 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타인이 나의 진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혹은 내 생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원망할 수 있을까? 책은 우선 나를 제대로 알게 해 주고 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직장관계, 친구관계, 애인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거기에 군 장병을 위한 에니어그램까지 저자의 세심한 배려에 놀란다. 인간을 9가지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기에겐 쓸쓸한 면이 없진 않지만 인간관계가 힘든이에게 나를 알고 타인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되기에겐 충분한 책이라고 본다.

(티타임 내, yes24.com/Goods)

주변의 경험과 의학적 이론 근거로 삼은 주장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중앙생활사, 후나세 슌스케 지음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고장관념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암에 걸렸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을 초기에 발견하여 없애는 것 등 기존의 치료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다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자의 주변에서 겪은 실제 일들과 의학적인 이론 등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목적으로 투여되는 것인데, 이 항암제가 정상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환자의 80%가 이로 인해 죽는다는 것이다. 방사선 치료 또한 마찬가지다.

이 책은 어떤 잘못된 사실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쓴 글이므로 읽으면서 흥미를 가졌으나, 다 읽고 나서는 뭔가 기분이 짹짹했다. 비싼 치료비를 빚을 저서라도 다 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의사의 치료만 바라보고 있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마음이 어떻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나는 자연이처럼 자연의화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연이도 항암제가 안 좋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항암제와 그 외 병원에서의 암치료 방법이 안 좋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충분히 알게 되었고 조심해야겠다.

(백해영, aladdin.co.kr)

## 책속의 밑줄긋기

○...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은 양쪽 다 없었다.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고 넓적다리뼈에 발이 달려 있었다. 병명은 짧은 팔과 다리에 손과 발이 붙어 있는 바다표범의 몸갈퀴를 의미하는 해포지증이었다. 나는 중증의 '불구자'로 간주되었다. 어릴 때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쉽게 뛰어다닐 수 있었고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보았지만,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열두 살 무렵부터 자의식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바깥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나는 심대 소년였고 바깥세상의 일부가 되기를 절실히 바랐지만, 세상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장애가 없는 또래 아이들처럼 될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필사적이었던 표현이 맞을 것이다.

-<엘리스 래퍼 이야기> 본문 21 · 104쪽에서, 황금나침반, 엘리스 래퍼 지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http://www.yosiamun.com)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문물재현선사님역사 / 23가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제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래현 선사(禪師)!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변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찻는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뛰어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대소절마다 대한문물재현 선사의 시상이  
 화살을 퍼덕여 직중사기듯 역대조사와  
 선사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선가귀감 발행  
 선가귀감 방문 당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권이여 출간될 책은 <바로보인 선문염송 6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http://www.zenparadise.com)

**지구산업**

www.bangaro.com/경주책.서/방정.넷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좌번호: [농협]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하와이 무량사 종무원 모집**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신심이 깊고 성실한 불자를 종무원으로 모집합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 주 수도 호놀룰루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무량사는 미주포교의 활성화와 종무행정의 효율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래**

- 분야: 종무행정
- 자격요건
  - 연령: 30-50세(남/여)
  - 컴퓨터 사용 가능, 영어 능통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종 이상)
- 인원: 1명(가족동반 가능)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 제출기간: 불기 2550(2006)년 6월 5(월)-6월 20일 (금) 오후 5시
- 근무조건: 숙식제공
- 혜택: 미국 종교비자 제공 (2년후 영주권 취득 가능)
- 서류접수 E-mail: [muryangsa@empal.com](mailto:muryangsa@empal.com)
- 문의: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주지 白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계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관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관, 스퀘트형강관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포공시)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